

광주시청 김태효, 입단 첫 대회서 육상 100m 우승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1위
한국 역대 2위 기록 보유
김국영은 부정출발 실격 불운
부상 강다슬 결승전 출전 안해



김태효

김태효(30)가 광주시청 입단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태효는 29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Amazing 익산 KFT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49로 1위를 차지했다. 김태효는 10초54로 예선을 통과한데 이어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10초58의 이규형(국군체육부대), 3위는 10초63의 비웨사다니엘가사마(안산시청)가 차지했고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안산시청)는 10초63으로 3위에 올랐다. 김태효는 남자 100m 국내 두 번째 기록(10초17)을 가진 선수다. 파주시청 소속이던 지난해 7월 6일 2022고성통일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개인 최고(종전 10초18)이자 '선수 기준' 한국 역대 2위인 10초17을 기록했다. 10초07의 한국 기록을 보유한 김국영(광주시청)은 예선에서 전력으로 달리지 않고도 10초39로 전체 1위를 했지만, 결선에서는 부정출발로 실격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같은 팀 강다슬은 여자 100m에서 12초31로 예선을 통과했으나 결승을 뛰지 않았다. 1위는 11초95를 기록한 김다은(가평군청)이 차지했다.

강다슬은 지난해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결승전에 나서지 않았다. 김태효는 "대신 김태효가 1위를 하면서 광주시청 유니폼을 입은 뒤 큰 선물을 안겼다"며 "김국영이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두차례 연속 실격돼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선수들은 오는 5월 5-9일 예전에서 열리는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농구 전설’ 박찬숙 실업팀 지휘봉 잡는다

서울 서대문구청 여자실업농구단 창단...초대 감독 선임

서울 서대문구청 여자실업농구단이 29일 창단했다. 박찬숙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서대문구청 여자실업농구단은 이날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이성한 서대문구청장, 주희봉 한국실업농구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개최했다. 올해 1월 사령탑에 선임된 박찬숙 감독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손경원 코치가 선임됐고,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에서 트레이너를 역임한 정지연 트레이너가 합류했다. 2월 입단 테스트를 통해 선발한 선수단은 국내 프로리그에 몸담았던 정유진, 홍소리, 김해지, 강주은을 비롯해 임현지, 조은진, 김나림, 강다현 등 8명으로 구성했다. 훈련장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북악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하며 선수단 숙소도 서대문구 관내에 마련했다. 박찬숙 감독은 "여자농구 저변을 확대하고 농구 꿈나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며 "될 곳이면 선수들이 꿈을 펼치도록 책임감을 갖고 농구단을 키워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현 서대문구청장은 "농구단 창단이 학교 운동부와 엘리트 체육, 스포츠 여가 문화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농구단 운영으로 스포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내 여자 실업 농구팀은 기존의 김천시청, 사천시청, 대구시체육회, 서울시체육회에 이어 서대문구청이 5번째다. 또 서울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가운데 유일할 단체 구기 종목 팀이 됐다. 서대문구청은 5월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전국실업연맹전을 시작으로 7월 중별선수권, 10월 전국체전 등에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29일 박찬숙 감독이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서대문구청 여자실업농구단 출범식에서 무대로 오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주시청 김은미 국제하프마라톤 제패

인천하프마라톤 여자부 우승
심귀철 코치 지도자상 받아



김은미(여주시청)가 지난 26일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1위로 골인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여주시청 육상팀 김은미가 인천국제하프마라톤 대회 여자부 정상에 올랐다. 29일 전남육상연맹에 따르면 김은미가 지난 26일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1시간 14분 57초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김은미는 국제·국내 엘리트 부문에 참가해 인천문학경기장을 출발해 캠퍼스타운역, 송도국제대로, 동막역사거리, 인천문학경기장 동문 사거리를 거쳐 인천문학경기장으로 돌아오는 21.095km 하프코스를 1시간 14분 57초에 주파해 가장 먼저 결승타이를 끊었다. 김은미에 이어 임경희(삼척시청)가 1시간 18분 01초로 2위, 김미정(전북체육회)이 1시간 19분 55초로 3위를 차지했다. 심귀철 여주시청 육상팀 코치는 여자 국내엘리트 지도자상을 받았다. 대한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선수 약 1만 여명이 참여했으며 국제·국내 엘리트 부문(하프코스)과 마스터스 부문, 하프코스, 10km, 5km 건강달리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군대와 얽힌 러시아·벨라루스 선수 출전 금지”

IOC 입장 급선회...개인자격 국한 속 제재 강화 새 기준 제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국제 대회 출전을 개인 자격으로 국한하되 세부 제재를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IOC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와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OC는 먼저 두 나라 선수가 자국 군대와 연관되지 않은 이상, 개인 자격으로 중립국 소속으로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 군인 또는 군에서 운영하는 팀에 소속된 선수는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제한한 셈이다. AP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도핑 규범 위반에 따른 징계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라는 명칭으로 참가한 2020 도쿄올림픽에서 러시아의 메달 획득자 20명 이상이 현역 군인이었으며, 당시 ROC 전체 메달 71개 중 45개가 러시아군과 연계된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따낸 것이었다. 군대와 연관된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뛰지 못하면 러시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IOC는 군대와 얽혀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을 우선 국제대회 출전 부적격자로 추려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2024 파리하계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는 손팻말. /연합뉴스

IOC는 또 구기 종목과 같은 단체 경기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참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집행위원 15명이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구기 종목은 물론 계주, 혼성 복식, 기계체조 단체전과 같은 경기 출전에도 제한받는다. IOC는 두 나라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복장 등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두 나라 선수는 완전히 흰색 또는 단색의 유니폼만 입을 수 있으며 팀 로고를 유니폼에 새길 수도 없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즈메의 문단속, 나의 연인에게
- 2관 단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 3관 용남이
- 4관 스즈메의 문단속
- 5관 단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 6관 스즈메의 문단속
- 9관 단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오토라는 남자, 블루 서열, 같은 하늘을 보고 싶어
- 7관 새네커플 소울메이트, 샷건 웨딩
- 8관 새네커플 더 퍼스트 슬램덩크, 샷건 웨딩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BALLET CURATION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설공연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